

허련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를
중심으로 -

최 병 우*

차 례

- | | |
|-----------------------------------|-----------------------|
| 1. 서론 | 4. 정체성 파탄의 대안으로서 사랑 : |
| 2. 모국 체험과 국민정체성 강화 :
<바람꽃> | <중국색시> |
| 3. 정체성 혼란과 파멸 그리고 구원 :
<나비의 집> | 5. 결론 : <바람꽃> 삼부작의 의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족 여성 작가 허련순이 창작한 장편소설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이하 <바람꽃> 삼부작)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허련순은 정체성을 작품화하기 위해 국가, 민족, 성 등 조선족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와 인간 보편적인 가족정체성과 장애에 따른 자기정체성 등을 제재로 선택한다.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련순의 <바람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한중수교 직후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에게 동포로서의 정도 느끼지 못하고, 돈 때문에 엄청난 모멸을 감내하고, 불법체류자로서 법적·제도적 억압을 경험하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보다는 중국국민으로서 국민정체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이 변화하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허련순은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 한국으로 밀항하다 죽음에 이르는 인물을 통해 가족정체성이나 여성정체성 등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자유로워지자 허련순은 한족과 조선족의 혼혈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여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남성이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고, 긴 시간 뒤에 사랑의 힘으로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중국색시>를 발표한다.

허련순은 <바람꽃> 삼부작에서 조선족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제재에서 인간 보편적인 정체성으로 그 외연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하여 허련순은 정체성의 혼란이 한 인간의 삶을 고통과 파탄으로 이끌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타자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 즉 사랑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어 : 조선족, 재외동포법, 정체성, 이중정체성, 가족정체성, 정체성의 혼란과 파탄, 정체성 극복

1. 서론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그를 형성하는 ‘모든 부분집

합들이 교차되는 집합 또는 그 모든 소속들의 총합¹⁾이라면 정체성에 관한 담론은 그 범주가 매우 넓어진다.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종족, 시대, 가족, 직업, 성, 종교, 학력, 취미, 건강, 외모 등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에 매달려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혼란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한 작가가 정체성을 주제로 다루고자 할 때에는 많은 정체성 형성의 요인 중에서 작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몇몇 요소나 자신이 속한 시공간을 의미화 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제재를 선정하기 마련이다.

허련순은 조선족 여성 작가이다. 허련순에 대한 이러한 간단한 정리는 그녀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허련순은 1986년 <아내의 고뇌>로 등단한 때부터 여성 작가로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여성정체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사내 많은 남자>(1989), <투명한 어둠>(1994),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2004)를 비롯한 일련의 중단편을 통하여 여성 문제에 치중하여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남성중심주의를 통렬히 비판하는 드러내는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²⁾ 허련순이 한중 수교 이후 모국인 한국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과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흔히 이중정체성³⁾이라 일컬어지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한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조선족들이 심각하게 경험한 바로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주제의 한 축을 이룬다.⁴⁾

- 1) 미셸 세르, 『약간의 철학』, 미셸 세르·실비 그뤼스조프 외 9명, 이효숙 역,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알마, 2013, 145쪽.
- 2) 김미란, 『허련순 중단편 소설의 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통시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5집, 한중인문학회, 2014 참조.
- 3) 오상순은 조선족이 경험한 이중정체성을 정리하고 그 문학적 형상화가 조선족 문학의 한 특징임을 설파한 바 있다. 오상순, 『이중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 『현대문학의 연구』 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0-46쪽.

열아홉 살에 홍소병 잡지에 시를 발표한 후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쓴 허련순은 1986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1989년 겨울 첫 한국행에서 동아출판사에서 단편집 『사내 많은 여인』을 상재한다. 이 책을 발간할 때, 편집인에게서 60년대 소설 같지만 조선족 작품이라는 호기심에서 출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보문고에서 본 한국 소설의 수준을 느끼면서 작가로서의 한계를 절감한다. 첫 한국행에서 만난 이러한 놀라움은 자신의 생의 조건이자 출발점인 여성성을 찾는 것과 민족의 뿌리 찾기로 자신의 문학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⁵⁾ 허련순은 이때의 결심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한국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일 년에 한 번씩 한국 체험을 하여 조선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밤에는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힘든 과정⁶⁾을 통하여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소설 <바람꽃>⁷⁾을 발표한다.

<바람꽃>을 발표한 후 중단편집 2권과 장편소설 2권을 상재한 허련순은 1990년 초보다 더 극심한 작가적 한계를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련순은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한국문인들이 문학을 통하여 사유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하여 한국으로 건너와 2년간 석사과정⁸⁾에 다닌다.⁸⁾ 이 선택은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6년 연변대학 조선언어 문학 학부에서 ‘공농병학원’이란 이름으로 3년간 노동과 학업을 병진한 것이 문학 공부의 전부였던 허련순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1999년부터 광운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수학⁹⁾하며 페미니즘을 비롯한 새로운 문학이론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작가로서 한 단계 성장을

4) 최병우는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소설의 이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하면서 이중정체성이 그 한 특징이 됨을 밝힌 바 있다. 최병우, 『한중수교가 조선족 소설에 미친 영향』, 『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자료원, 2012, 191-220쪽.

5) 허련순, 『오줌 누는 돌(문학자서전)』, 『도라지』 2004, 22-23쪽.

6) 위의 글, 23쪽.

7) 『바람꽃』, 범우사, 1996,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바람꽃』, 쪽수로 한다.

8) 허련순, 앞의 글, 23쪽.

9) 김미란, 앞의 글, 227쪽.

이론다. 이 기간의 문학 체험과 서구 문학이론에 대한 이해는 작가 허련순의 문학적 세계를 넓혀, 자칫 소설적으로 단순해지기 쉬운 이중정체성을 벗어나 조선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체성 혼란과 등단 시기부터 추구해온 여성정체성의 문제 등을 다룬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¹⁰⁾를 발표한다.

허련순은 <나비의 집>을 발표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2014년 또다시 조선족정체성과 인간 존재의 정체성으로 주제를 확장시킨 <중국색시>¹¹⁾를 『연변문학』에 연재한다. 이 작품은 조선족 여성 작가 허련순이 <바람꽃> 이후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여성정체성과 조선족정체성 나아가 인간의 보편적인 정체성 문제를 다루어 <바람꽃>에서 <나비의 집>을 거쳐 <중국색시>에 이르는 장편소설 삼부작¹²⁾의 마무리에 해당한다.

본고는 <바람꽃>에서 <나비의 집>을 거쳐 <중국색시>에 이르는 허련순의 <바람꽃> 삼부작에 나타난 정체성과 관련한 작가의 시각 변화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람꽃> 삼부작에 그려지고 있는 정체성의 양상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는 조선족 여성 작가 허련순이 보여준 작가의식의 변화 과정이면서 한국의 재외한인정책의 변화와 맞물린 조선족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조선족이 처한 현실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허련순의 작가의식의 변화를 살피 허련순이 도달한 조선족정체성 나아가 여성정체성과 인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0)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자연사, 2004., 이하 이 작품 인용은 『나비의 집』, 쪽수로 한다.

11) <중국색시>, 『연변문학』 2014년 1월~12월. 이 작품의 인용은 <중국색시>, 연월, 쪽수로 한다.

12) 본고에서는 허련순의 <바람꽃>, <나비의 집>, <중국색시> 등 세 장편소설을 정체성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해하여 이하 세 편을 <바람꽃> 삼부작이라 칭한다.

2. 모국 체험과 국민정체성 강화 : 〈바람꽃〉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중국에 생중계되면서 조선족들에게 한국이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 개혁개방 이후 소규모나마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시작되어 한국인들이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까지 찾아가면서 조선족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앞선 한국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방문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들의 한국행이 급속히 늘어나 적지 않은 부를 획득하게 된다. 그 결과 조선족에게 한국행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고자 하는 욕망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한중수교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조선족들은 조상들의 고향이자 자신들이 모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저층을 형성하여, 막노동으로 돈을 벌면서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차별을 당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강제 송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했다. 조상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던 모국 한국, 외모나 언어가 동일한 동포의 나라에 와서 겪게 된 심한 노동과 차별 그리고 법적인 제재는 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동포로서의 동질감이 훼손되기에 충분하였다. 동포에게서 받은 차별로 인해 조선족들은 자신이 과연 한민족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게 된다.

허련순은 한중수교 직후 조선족들이 한국을 체험하면서 심각한 이중 정체성 문제에 부딪히는 시기에 한국에 건너와 조선족들의 삶과 생각을 직접 접하고 〈바람꽃〉을 집필한다. 이 작품은 고향땅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유골을 모시고 한국을 찾는 조선족 작가 홍지하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식을 잃은 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홍지하의 친구 최인규 부부의 한국 체험을 통해 조선족 정체성 문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허련순이 이 시기

한국 체험을 통하여 갖게 된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에 관한 시각이 분명히 드러난다.

<바람꽃>에서 한중수교 이후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한국인들의 배금주의가 지닌 문제점 등은 홍지하의 경험으로 구체화된다. 홍지하는 한국에 입국하자 자신보다 먼저 한국에 와있는 최인규의 숙소에서 머물면서 아버지의 가족을 찾는다. 그러나 홍지하의 아버지가 일제 말기에 징병되어 만주로 떠난 후 할아버지가 고향을 떠나버린 탓에 가족 찾기가 어려워져 한국 체류 기간이 천연되자 최인규의 아내 지혜경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게 된다. 공사현장에서 홍지하는 한국인 사장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조선족들을 보며 점차 조선족이 처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결국 홍지하는 조선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장에게 대들고는 대한민국의 조선족 일자리가 ‘썩구비렸다’는 말을 남기고 공사현장을 떠난다. 이는 조선족들이 잠깐 동안의 일자리 공백조차도 두려워서 사장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지만 조선족의 손이 필요한 일자리가 너무나 많아 조선족이 강하게 대들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기도 하다. 공사 현장을 떠난 홍지하는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탔다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동료 오두석과 주먹 싸움을 벌인다. 오두석이 “개새끼 …… 강제 출국시킬 거야 …… 불법체류하는 주제에 …… 사람까지 때려 ……”¹³⁾라고 고함지르자 홍지하는 극도로 흥분하여 그를 처절하게 구타하여 그의 차별 의식을 잠재워 버리고, 이후 친하게 지내게 된다. 이러한 홍지하의 행동과 그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각박한 현실과 차별을 감내하는 것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현실과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약점 때문이라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홍지하는 한국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갖는 문제

13) <바람꽃>, 190쪽.

점을 깨닫는다. 홍지하가 공사 현장에서 사장에게 대드는 방식이나 오두석과의 주먹다짐은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위험한 대응 방법이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조선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그 결과 홍지하는 조선족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연행과 강제 출국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차별이 갖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게 된다.

“선생은 자기 글에서 동포를 박대하는 민족이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는데 그 이유를 요약해서 말해줄 수 없습니까?”

이 물음에 홍지하는 가슴이 격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애써 흥분을 누르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대우입니다. 재미동포와 재일동포들은 마음대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데 중국동포만은 왜 제한합니까? 그들은 잘살고 우린 못살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자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70년대와 80년대에 스스로 이민을 떠난 재미동포들과는 달리 중국동포들은 나라가 없고 또 나라를 지켜주는 이가 없을 때 살 길을 찾아 고국을 떠났다가 조국을 찾기 위해 항일투쟁에 뛰어들었던 투사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한국이 이들을 못산다고 냉대할 수 있습니까?”¹⁴⁾

조선족은 일제강점기에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의 후예이다. 조선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재미교포나 재일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대를 받는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이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재미교포나 재일교포와 비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조선족을 동일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자신들도 재미교포나 재일교포처럼 동일한 재외동포로 취급해 집중 단속이나 강제 출국과 같은 물리력 행사를 자

14) <바람꽃>, 157쪽.

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 시기 재미교포나 재일교포에 비해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차별한 것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수립 후에 해외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으로 한정하여 일제 강점기에 이주하여 공산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한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결과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별은 참여정부 시기에 재외동포법이 개정¹⁵⁾됨으로써 사라져, 조선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법적 제약은 해소된다.

홍지하가 차별과 박대에 시달리는 조선족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조선족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그의 친구 최인규 부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조선족정체성을 체득한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크게 다친 최인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 신세만 진다. 방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버겁던 아내 지혜경은 사장의 꼬임에 빠져 아이를 낳아 주기로 하고 병원비를 도움 받는다. 그러나 결국 사장이 변심하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아 버리고, 아이를 지을 수도 없게 된 지혜경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한다. 아내의 자살에 분노한 최인규는 사장을 찾아가 협박하여 위자료를 받아서 홍지하에게 진 빚을 갚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살하고 만다.

병원비가 없어서 아들을 떠나보낸 후, 원수 같은 돈을 벌어 보려 한국에 건너와 악착같이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최인규 부부는 돈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만다. 이러한 극단의 체험을 한 최인규는 조선족과 한국인을 ‘인간 중심적/금전 중심적’이라는 이항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조선족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이른다.¹⁶⁾ 최인규가 인식한 조선족정체성은 홍

15) 2001년 11월 재외한인을 거주국 별로 차별한 재외동포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2004년 3월 5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해외 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를 차별하는 조항이 폐기된다.

16) 조선족들의 이 같은 이항대립적 인식에 따른 조선족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최

지하에게 남긴 유서에 잘 드러난다.

내 부탁은 너 여기에 더 머물지 말고 어서 널 키워준 고향으로 가라!
고향은 의복과 같은 거야.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면서 너를 보호해 주
는 것이야. 난 죽을 때 고향을 향해 머리를 놓겠다.
기억하라. 사람은 재물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17)

최인규는 각박한 한국 체험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중
국이야 말로 자신을 보호해 줄 공간이라는 인식에 다다른다. 이는 이중
정체성에 고민하던 조선족이 민족정체성보다 국민정체성을 중시하게 된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인들과 같이 추악해지기보다는 가난하나마 인간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
야 한다는 깨우침이기도 하다. 흥지하는 최인규의 유언에 담긴 정체성
인식에 수긍하여, 재산 상속 문제로 남편과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핏줄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고향 근처에 유골을
뿌린 후, 한국에서 겪은 수모와 박대와 차별과 방황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에 고향을
떠나 이미 '바람꽃' 같은 존재가 된 조선족들이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곳은 자신들이 뿌리내려진 조국 중국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바람꽃>에 나타난 이러한 조선족정체성의 확인은 사회적으로나 법
적으로나 재외동포인 조선족을 차별하는 한중수교 직후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이 경험하는 정체성 수립의 한 양상일 수 있다. 최인규의 정체성
인식은 이 시기 조선족들이 지닌 정체성에 대해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
한 유명기가 지적한 한국사회 정착형, 개인주의형, 국민의식의 강화형¹⁸⁾

병우, 『조선족 소설과 민족의 문제』, 앞의 책, 204쪽 이하 참조.

17) <바람꽃>, 270-271쪽.

18) 유명기,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87-93쪽.

중 후자에 해당한다. 이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모국에서 차별과 박대와 비인간적 대우를 받다가 강제 출국이나 죽음으로 내몰려 본 조 선족의 처절한 정체성 인식이다. 이런 점에서 <바람꽃>은 한중수교 직 후 재외동포와 이주민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던 한국사회에서 작가 허련순이 한국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도달하게 된 조선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3. 정체성 혼란과 파멸 그리고 구원 : <나비의 집>

한국 유학을 마친 허련순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장백산』에 장편소설 <나비의 꿈>을 연재한다. 허련순이 유학하던 2000년대 초까지는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기였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이입되기 시작한 것은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 이후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현장에 등장하였고 이후 임시방편적으로 산업연수제도와 같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308,165명¹⁹⁾에 이르러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체류를 제도적 틀 속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자 종래의 규제 위주에서 개방과 통합의 이민 행정으로 전환한다.²⁰⁾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 따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조선족을 비롯한 재외한인들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입국이 이전에 비해 비교적

19) 김원숙,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2012-4호,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17쪽.

20) 위의 글, 같은 쪽.

자유로워지고, 재한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

허련순의 <나비의 집>은 한국에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차별이 박해가 잔존하는 시기에 씌어졌다. 조선족들은 합법적인 한국 이주가 쉽지 않아 밀항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불법 체류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나비의 집>은 한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조선족들이 낡은 어선의 선창에 숨어 한국 영해까지는 오나 상륙에는 실패하고, 대부분의 밀항 시도자들이 한국 해양경찰에 발견되기 전에 선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국에서의 생존이 너무나 힘들어 희망을 찾아 한국행을 시도하였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는 과정은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 받고 그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다 결국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불안 속에서 밀항에 성공한 뒤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낡은 선창 속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과거사를 나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안세희, 송유섭, 쌍희, 왕청 여자 말숙, 안도 부부, 채숙, 미자 등 적지 않지만 작품 전체의 사건을 제시하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초점주체는 안세희와 송유섭이다. 이 두 인물의 과거 회상과 그들에 대한 서술이 작품의 스토리 라인을 형성한다. 이렇듯 <나비의 집>은 현재 사건의 서술보다는 과거 사건에 치중하는 교차시점을 사용하여 조선족정체성과 함께 가족정체성과 여성정체성²¹⁾ 등 작가가 주제화하고자 하는 바를 형

21) 가족정체성은 한 개인이 부모나 자식 그리고 가문 등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정체성을, 여성정체성은 여성으로서 갖게 되는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가족정체성, 여성정체성 등의 용어는 클레르 페케테, 『태어날 때 성별 부여하기』, 미셸 세르·실비 그뤼스조프 외 9명, 이효숙 역, 앞의 책, 96-7쪽과 미셸 세르, 『약간의 철학』, 위의 책, 146쪽 이하를 참조함.

상화하고 있다.

<바람꽃>이 조선족정체성을 주제로 다루나, <나비의 집>에는 이 주제가 전경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한국으로의 밀항을 꿈꾸는 이들의 그간의 삶은 신산하고 각박했고, 그들은 한국행을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다. 예컨대 말숙은 아들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구금이 되었다가 돈 있는 친구들은 풀려나고 혼자만 옥살이를 하다가 살인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형당하자 한국으로 밀항을 감행했고, 벌써 세 번째 밀항이지만 이번에 또 실패해도 언제까지든 밀항을 시도하려 한다. 그녀는 돈이 없어 아들이 사형당한 중국에 환멸을 느꼈고, 포원이 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가야만 한다. 이렇듯 밀항선을 탄 인물들은 각자 다른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은 조선족정체성 인식과는 무관한 현실적 삶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 모국으로 찾아가고 선창에 간혀 밀항이 성공하기를 기다리지만 한국을 체험한 적이 없기에 민족정체성이나 국민정체성이란 한낱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다.

<나비의 집>에는 가족정체성이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한다. 조실부모하고 조선족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양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한족 쌍희,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다 가난 때문에 사형당한 후 삶의 방향을 상실한 말숙,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한 세희, 고아로 태어나 두 번이나 양부모 밑에서 자란 유섭 등 이 작품에서 과거사가 소개된 모든 인물이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중 유섭의 삶은 가족정체성의 혼란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유섭은 열 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떠돌이 화가와 눈이 맞아 가출하고 아버지도 집을 떠나 버린다. 홀로 남은 유섭은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옆집 영구 아버지는 유섭을 버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니 기다리지 말라 타이르고, 외아들을 잃은 윤도림에게 양자로 보낸다. 자신의 친부모로 알았던 부모가 집 앞에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 키운 것임을

알았을 때, 유섭은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더욱이 윤도림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하고 그의 집에 갔을 때 새어머니가 수시로 자신과 죽은 아들 송철과 혼동하자 유섭은 더더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한다.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유섭은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외톨이 신세로 전락한다. 고아였던 자신이 빈농의 자식으로 성장하였는데 키워준 부모가 자신을 버린 후 새로 맞은 양부모의 성분 때문에 비판과 모멸을 당해야 하는 유섭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현실에 대한 불안이 크게 교차하여 현 상황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게 된다.

유섭은 학교에서 받았던 정신적 고통 때문에 농촌에 내려간 다음에는 이력서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써넣지 않았다. 그저 고아라고만 적어 놓았다. 이때부터 유섭은 다시 고아가 되었다. 윤도림 아저씨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는 중국공청단에 들어가고 싶었고 중국 인민해방군 전사가 되고 싶었다. (중략)

그 이듬해 징병 모집 때, 그는 입대를 신청하였다. 신분이 고아였으므로 농촌 빈하중농들의 동정과 신임을 한몸에 지니고 추천을 받았다. 그는 영예롭게 중국 인민해방군 전사가 되었다. 윤도림 아저씨를 배신한 영예이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도 못 되어 신분을 속이고 고아로 가장했던 일이 탄로나 그는 다시 원래의 농촌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²²⁾

하향 되어 농촌에서 생활하던 유섭은 자신의 원래 신분인 고아라는 사실을 이력서에 기록하여 인민해방군에 입대하나, 목사 윤도림의 양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농촌으로 하향 되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힐난까지 받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절망감에 시달리던 유섭은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지만 저수지 관리인의 도움으로 삶을 되찾고, 그의 조언에 따라 문인이 되

22) <나비의 집>, 204쪽.

고 그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건강이 나빠져 아이가 여덟 살 때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다. 원고료 수입으로 병원비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턱에도 닿지 않자 유섭은 돈 되는 일은 닦치는 대로 했지만 7년 만에 아내가 죽자 아이만 남겨 두고 한국행을 시도한다. 유섭의 한국행은 정체성의 혼란이 평생의 짐이 되어 삶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새롭게 삶을 시작해 보려는 몸부림에 해당한다.

세희는 문화대혁명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혁명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자 여섯 살 나이에 송고래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맡겨진다. 혁명의 와중에 가족 해체를 당하여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세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큰아버지는 세희를 사랑하지만 만나기 어렵고, 큰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 붙어서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큰오빠는 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작은오빠는 낮에는 이것저것 온갖 일을 시키고 밤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 또 동네 아이들은 반혁명분자 자식이라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갖은 방법으로 괴롭힌다.

어느 날 동네아이들이 세희 옷 속에 지렁이를 넣었을 때,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다가와 지렁이를 꺼내준 착한 눈을 가진 아홉 살짜리 소년이 유섭이었고, 둘은 유섭의 부모가 그를 버리고 떠나고 윤도림에게 양자로 가게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세희에게는 가족 해체로 고통받을 때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유섭이 잊지 못할 존재로 남아 있고, 송고래에서 유섭과 보낸 시간은 세희의 마음 속에 원초적인 아름다움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유섭에게도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 품에서 자라던 송고래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더욱이 아홉 살 되던 해 자기 마을에 내려온 여섯 살 난 도시 소녀 세희와 함께 했던 기억은 가족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기 이전의 아늑하고 행복한 시공간으로 존재한다.

유섭이 사라진 후, 세희는 다시 부모님의 손으로 돌아가지만 그녀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푼 아버지가 혁명 중에 당한 고초의 후유증으로 죽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친구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희는 어머니 품을 떠나 이모네로 옮겨 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평화로운 이모 집에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아버지 같이 따르던 이모부가 세희를 범하고는 죄책감에 자살을 하자 세희는 남모르는 비밀을 갖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온다.

어린 시절 작은 오빠에게 당한 성추행, 사춘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불륜 목격, 이모부에게 당한 성폭행 등은 세희에게 커다란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 남녀 간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도 완전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중적인 여성정체성을 드러내 보인다.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찾아 무수히 헤맸던 그녀는 결혼을 세 번 하고 세 번 헤어졌다.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것, 이것이 그녀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결혼은 왜 그렇게 쉽게 하는 거냐? 어머니는 그녀가 너무 쉽게 남자를 사귀다고 나무랐다. 왜 쉽게 헤어지냐가 아니라 왜 쉽게 만나느냐고 묻는 걸 보면 어머니는 그녀가 남자와 헤어지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더 싫었던 것 같다.²³⁾

그녀는 주체적으로 남자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와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별을 선언하고 만다.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해 결별하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도 이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별하여 아버지가 다른 두 아들을 갖게 되지만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나선다.²⁴⁾ 세희는 여성정체성을 찾기 위한

23) <나비의 집>, 20쪽.

24) 이는 <바람꽃>에서 최인규의 아내 지혜경이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씨받이가 되었으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살하는 것이나, 홍지하의 아내 고애자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한국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이 알게 되자 이혼당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여성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허련순이 한국 유학 기간 동안 페미니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된 사실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정을 계속하다가 돈을 벌어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들 둘을 중국에 두고 혼자서 한국으로의 밀항을 감행한다. 사회의 남성 편력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어머니가 말하듯, 성적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게는 자신이 갈구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여성으로서 자신을 진정 이해하고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지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일은 그것이 ‘나비의 집’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성적인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찾으려는 고통스러우면서 진정한 노력인 것이다.

가족정체성의 혼란으로 시련을 겪고 피폐한 삶을 살아온 유섭과 가족 해체의 기억과 성적인 정신적 외상으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여성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는 삶을 산 사회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세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의 모색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견어내지 못하면서도 낯은 어선의 선창으로 들어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한국 영해로 들어온 배는 며칠 동안 꿈쩍도 않고, 물도 식량도 공급되지 않아 선창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음에 이른다.

사회는 밀항선에서 유섭을 처음 본 순간 어디서 본 듯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힘든 삶을 꾸려가던 시기에 신분을 밝히지 못할 상황에서 사회를 만나 부끄러운 짓을 한 기억을 가진 유섭은 첫눈에 사회를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척한다. 그러나 밀항이 실패한 것이 분명한 순간 유섭은 사회에게 송고래에서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때 사회와 유섭은, 자신들의 기억 저 멀리 수십 년의 시간 저편의, 송고래에서 아름다웠던 만남을 서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진정 찾아 헤매던 ‘나비의 집’이 유년기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공간이었음을 깨달은 사회와 유섭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비좁은 선창이지만 나란히 누워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시간을 기다린다.

세희와 유섭은 가족정체성과 여성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든 삶을 살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꿈꾸며 살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과멸의 순간에 만난 유년기에 체험한 아름다운 시공간은 그들이 평생을 갈구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밀항이 실패하고 한국해양경찰이 그들이 숨어 있는 배의 선창을 열 때 유섭은 행복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희는 실낱같은 숨이 붙은 상태에서 유섭이 아직 살아 있다고 울부짖는다. 가족정체성과 여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삶이 황폐해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생을 고통스럽게 찾아 헤매던 자기정체성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그들 앞에 비극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4. 정체성 파탄의 대안으로서 사랑 : 〈중국색시〉

〈바람꽃〉에서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을 〈나비의 집〉에서 가족정체성과 여성정체성을 다루었던 허련순은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2014년 정체성 혼란의 다양한 양상들을 다룬 〈중국색시〉를 『연변문학』에 연재한다.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후 조선족의 한국행은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한국에서의 생활 역시 불안의 요소가 크게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족에게 한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이면서 차별의 공간임은 변함이 없다.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2위라는 지위에 올라서기는 하였지만, 아직 중국의 일반인들에게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어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의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의식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련순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 처한 현실과 조선족이 갖는 정체성을 소설화하기 위하여 한족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난 조단이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단이의 아버지는 한족으로 조선족과 결혼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해 중농의 딸인 단이 어머니와 결혼하였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처가의 성분 문제로 비판을 받고 또 아내가 딸을 낳자 아들을 얻기 위해 집 밖으로 나돈다. 단이는 한족과 조선족 사이에서 태어나 조선족 어머니 밑에서 조선말을 배우며 조선족으로 성장하였지만 늘 자신의 정체성은 위협받는다. 단이는 중국 국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혼혈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다.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것이 싫어서 단이는 학교가 과하면 친구들이 집에 돌아간 뒤 혼자 귀가하려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오곤 한다.

일부 지점은 아이들은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놀려주곤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그를 놀려주는 말은 조금씩 달랐다. 한족아이들 “꼬리뽕즈”라고 놀렸고 조선족아이들은 “산동뽕즈”라고 놀렸다. 그리고 조선족아이들과 한족아이들이 섞여있을 때는 조선족아이들은 “짜구배”라고 놀렸고 한족아이들은 “얼찬즈”라고 놀렸다. 아이들은 늘 그녀를 다르게 보았지만 그녀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족아이들속에서는 자신이 한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며 한족들속에서는 조선족이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²⁵⁾

단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에 시달린다. 단이는 한족 사이에서는 자신을 한족이라 생각하고 조선족들과 어울릴 때는 자신을 조선족이라 생각하는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조선족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란 단이는 조선족정체성이 강화되었지만 조선족들이 자신을 완전한 조선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커다란 상처로 자리 잡는다. 더욱이 단이로서는 집을 나가 떠도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싸울

25) <중국색시>, 2014.2., 234쪽.

때 언제나 부모들이 “꼬리뽕즈”, ‘산동뽕즈’라고 상대 민족을 폄하하는 말을 하여 신경을 건드리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방황으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단이네 학교 체육 선생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안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단이 앞에서 어머니와 무섭게 싸우다가 꼬리뽕즈라 그렇다는 말로 모욕을 준다. 이 일로 단이에게 부끄러운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아버지는 뇌성마비 환자인 이복동생 찬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찬이의 친어머니인 한족 아줌마까지 들어와 살게 되면서 잦은 충돌이 일어난다. 새어머니와 부딪히기 싫어 집밖으로 나돌던 단이는 자신의 대학 진학 문제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크게 충돌하는 것을 보고는 결국 집을 나오고 만다. 단이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는 것이 괴롭고 중국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으로 국제결혼 상담소를 찾고, 열 몇 살이나 많은 김도균이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

이주 절차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도균과 단이는 도균의 부모님이 물려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여관에서 생활하지만, 도균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 각 방을 쓴다. 여러 수속을 밟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작은 교회에서 도균의 외숙모와 친구 경석만이 참석하여 단출한 결혼식을 치른다. 결혼식이 끝난 후 외숙모와 경석과 함께 한 자리에서 외숙모가 단이를 중국색시라 부르자 도균과 단이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남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듯 민감하게 주위를 둘러본다. 단이도 덩달아 주위를 살피게 되었다. 중국에서 왔으니 중국색시라고 해도 마땅하겠지만 이곳에서 듣는 중국색시란 이름은 웬지 거슬렸다. 꼭 차별시당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정서에는 충주에서 오면 충주댁이라고 하고 원주에서 오면 원

주객이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웬지 중국색시라는 호칭은 지역적인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져있는것 같았다.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솔직히 요즘 누가 결혼하는 녀자를 보고 충주색시나 원주색시라고 부르는가. 가령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없었을것이다. 하지만 외숙모가 단이를 중국색시라고 떠들 때마다 남자한테서는 불편한 기색이 확연히 알렸다.²⁶⁾

중국에서 온 새댁이라는 뜻에서 중국색시라는 말은 차별 의식이 배어 있지 않은 언어적 관습인 듯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차별을 전제한 말이기도 하다. 외숙모가 어떤 생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하였든 도균과 단이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이로서는 중국색시라는 말이 어려서부터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던 떼떼하지 못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어서, 도균으로서는 대학 졸업식 날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다리 하나를 잃는 장애를 입어 의식은 항상 사고가 났던 시간에 정지해 있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한국 여자와 결혼하기 어려워 친구 경석의 도움으로 조선족인 단이와 국제결혼을 하게 된 불편한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어서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불편함을 가슴에 묻고 집으로 돌아와 한 방에 든 단이는 도균의 애무에 화려한 첫날밤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가 바지를 벗을 때 한 쪽 다리가 없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 벌레를 털어버리듯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서슬에 도균이 침대 밖으로 내동댕이쳐진다. 중국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한국에 와서 두 달을 함께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도균에게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는 단이가 이렇게 놀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단이의 강한 거부의 몸짓에 대해 장애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도균은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마음 속 깊이 내재해 있던 장애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26) <중국색시>, 2014.4., 252쪽.

그는 상처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구석에 구겨진채 신음을 하고 있는 녀자를 향해 몸을 움직여갔다. 한손에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던 의족을 무기처럼 쳐들고있었다. 남자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네가 나한테 준 굴욕과 치욕을 모두 되갚아주고말것이야.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단이가 두손을 비비면서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는 입귀를 실그러뜨리며 푸르스름한 미소를 내비쳤다. 그리고는 한발로 우악스럽게 녀자의 몸을 가로타고 앉았다.

“감히 내가 널 괴물취급을해? 더러운 짱개인 주제에? 어디 괴물한테 당하는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픈지 내가 그 맛을 보여줄게.”

더러운 짱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단이는 이미 강을 건넌 느낌이 들었다. 이사람과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따갑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어머니를 더러운 꼬리뿔이라고 욕하며 목을 조이던 아버지의 혼이 살아 돌아온듯싶었다.²⁷⁾

단이는 자신의 선천적인 정체성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하였으나, 이곳에서도 자신은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중국색시로 명명되고, 남편으로 믿고 따라온 도균은 자신의 장애마저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절망한다. 그녀는 장애를 속인 도균을 인정할 수 없어 그를 밀쳤고, 그에 대해 도균이 격렬한 반응을 보여, 단이와 도균은 다시 건너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고 만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받은 단이에게 ‘더러운 짱개’라는 말은 비수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던진 꼬리뿔이라는 말은 어머니를 자살로 몰고 간 무서운 말이기도 하였다. 결혼 첫날 밤 도균이 화가 나서 내던진 ‘짱개’라는 말은 단이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고, 오랜 기간 동안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질시와 모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었다. 또 장애를 입기 이전과 이후의 자기 사이에 정체성의 혼란이 심하고, 의식이 사고 시간에 정지해 있던 도균으로서도 자신

27) <중국색시>, 2014.5., 230쪽.

의 장애에 대한 단이의 반응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단이와 도균이 범한 상대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다음 날 아침 단이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단이는 도균의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향하지만 한국이 초행이어서 길 찾기에 애를 먹고, 잠잘 곳이 없어 헤매다가 친절한 조선족 아주머니를 따라 안산으로 가서 티켓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던 중년 남성을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단이는 조선족 다방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던 단이는 어느 음식점에서 국제결혼을 위해 선보는 자리에서 한 번 만났던 여자를 만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단이를 결혼을 빙자해 불법 이주한 여성으로 신고하여 법무부에 구금되었다가 도균의 보증으로 풀려나와 도균과 함께 살게 된다.

도균의 경제적 사정을 모른 단이가 아버지의 임종을 위해 남편이 마련해 준 큰돈을 들고 중국에 갔다 돌아오니 남편은 채무로 여관을 남의 손에 넘기고 잠적해 버렸다. 도균이 집을 외숙모 집에 맡긴 것을 안 단이는 그곳에서 일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도균을 기다리지만 한 번 전화 연결만 되었을 뿐 도균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그러나 경석이가 단이의 생계를 도와준 사실을 안 경석의 아내가 결혼이주여성인 단이가 윤락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여 재차 법무부에 갇히게 된다. 단이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정황을 알고 있었던 도균이 나타나 보증을 하고 함께 이모 댁으로 돌아온다. 도균과 며칠 함께 지낸 단이는 남편과 경석이 자신을 놓고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중국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복동생 찬이와 뱃속에 들어 있는 도균의 자식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한 것이다. 이복동생 찬이는 단이 자신의 혼혈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고 도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존재이지만 그들을 감싸 안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이기도 하다.

5년의 시간이 지난 후, 도균은 중국으로 단이를 찾아온다. 단이와 도균은 서로 헤어지기는 하였지만, 도균은 단이를 국제결혼 시장에서 만나기는 했어도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처음 만나 결혼식을 하는 날까지 단이를 위해 각 방을 썼고, 그녀와 헤어져 있는 시간에도 늘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단이도 도균이 여관을 정리하고 일년 이상을 떠도는 시간 동안 이모 댁에서 하염없이 도균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렇듯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5년이라는 긴 이별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단점을 인정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기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진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도균은 단이에게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 준 <치유>라는 시를 들려준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이었소 ...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모두였고 ... 모든 치유는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 내가 꿈 꾸지 못한 당신은 나의 하나뿐인 치유였소.”²⁸⁾

이 시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그대로 상대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치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깨달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도균은 단이를 만나 화해를 청하는 자리에서 이 시를 읊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예전에 내가 하는 말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단이의 바가지나, 두 사람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되고 훼손되어 모두가 아픈 사람이었고 서로 자신의 상처

28) <중국색시>, 2014.12., 252쪽.

에만 몰두하다 보니 상대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요지의 도균의 이야기²⁹⁾는 삶의 여러 구비를 건너 자신과 상대의 정체성을 원만하게 바라보는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결과이자,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단이와 도균은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을 받고 그들의 삶이 파탄에까지 이르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 화합에 이른다. <중국색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극복 양상은 조선족 여성 작가 허련순이 그간 보여주었던 여성정체성이나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을 벗어나 인간 보편적인 정체성을 제재로 하여 치열한 정체성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갈등과 파탄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결말을 보여준다. <중국색시>가 보여주는 이 같은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의 치유 과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소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 <바람꽃> 삼부작의 의의

조선족 여성 작가인 허련순은 정체성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국가, 민족, 성과 같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와 인간 보편적인 가족과 장애에 따른 정체성 등을 제재로 선택한다. 허련순의 <바람꽃> 삼부작은 조선족 나아가 인간이 부딪치는 다양한 정체성을 소설화하고 있다. 허련순은 한국과의 만남을 통하여 조선족정체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바람꽃>을 쓰기 시작한 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조선족의 의식 변화 과정을 반영한 일련의 삼부작을 통하여 정체성과 관련한 인식을 변화를 보여준다. <바람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한중수교 직후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에게서 동포로서의 정도 느끼지 못하고, 또 돈

29) <중국색시>, 2014.12., 254쪽.

때문에 엄청난 모멸을 경험하고, 불법체류자로서 법적·제도적 억압을 경험하면서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민족정체성보다는 중국국민으로서 국민정체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족들의 한국 진출이 급증하여 한국사회 내에 이주노동자와 조선족의 처우에 관한 비판과 저항이 증대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 정부의 이민정책이 변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허련순은 <나비의 집>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밀항을 하다 죽음에 이르는 인물들을 통하여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 받고 파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조선족정체성이 후경화된 것은 이 시기 허련순이 한국 유학을 통하여 조선족의 이중정체성보다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정체성으로 관심이 이동한 결과이다.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재한 조선족의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자유로워진 시기에 허련순은 <중국색시>를 발표한다. 이 작품은 한족과 조선족 사이에서 태어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여성과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는 장애로 사고 전후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남성이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상처에 함몰되어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른 후, 긴 시간 뒤에 사랑의 힘으로 타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혼란이 주는 비극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랑을 제시한 점이 이 작품의 성과이다.

허련순은 <바람꽃> 삼부작에서 조선족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제재를 다루다가 점차 정체성과 관련한 인간 보편적인 주제로 정체성의 외연을 확대해 왔다. 중국 소수민족으로 살던 조선족들이 동포의 나라 한국을 체험하면서 인식하는 이중정체성에 치중하던 <바람꽃>에서 여성 정체성, 가족정체성, 혼혈정체성, 장애정체성 등으로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하고 심화해 간 것은 작가 허련순이 정체성과 관련하여 긴 시간 동안 경험한 고민의 심도를 느끼게 해준다. 더욱이 <바람꽃>에서

조선족들이 중국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만드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나비의 집>에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파멸에 이른 인물이 기억해낸 순수한 시공간으로 유년의 기억을 제시하다가, <중국색시>에서는 정체성의 갈등으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랑을 제시한다. 이렇듯 <바람꽃> 삼부작은 정체성의 혼란이 한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결국 파탄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이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타자의 아픔을 받아들이 수 있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 즉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작가 허련순이 개인들이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과 파탄의 양상 그리고 그 극복의 방안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사색한 결과로 도달한 자리라 하겠다.

참고문헌

- 허련순, 『바람꽃』, 범우사, 1996.
-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자연사, 2004.
- 허련순, 『오줌 누는 돌(문학자서전)』, 『도라지』 2004.6., 21-24쪽.
- 허련순, <중국색시>, 『연변문학』 2014년 1월~12월.
- 강진구, 『모국 체험이 조선족정체성에 미친 영향 연구』, 『다문화콘텐츠 연구』 7집, 중앙대 문화콘텐츠연구원, 2009, 101-125쪽.
- 김미란, 『허련순 중단편 소설의 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통시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5집, 한중인문학회, 2014, 225-244쪽.
- 김원숙,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2012-4,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1-32쪽.
- 김호웅 · 김관웅, 『이중적 아이덴티티와 문학적 서사』, 『인문학논총』 47집, 건국대인문학연구원, 2009, 73-93쪽.
- 미셸 세르 · 실비 그뤼스조프 외 9명, 이효숙 역,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알마, 2013.
- 오경희, 『민족과 젠더의 경계에 선 여성의 이산』, 『아시아여성연구』 46-1,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183-210쪽.
- 오상순, 『이중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 『현대문학의 연구』 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37-69쪽.
- 오상순,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
- 유명기,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73-100쪽.
- 이광재 · 지해연, 『조선족 농촌여성의 실존적 특징 - 허련순의 <누가 나

- 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32집, 한중인문학회, 2011, 1-19쪽.
- 차성연, 『중국조선족 문학에 재현된 ‘한국’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 허련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1집, 한중인문학회, 2010, 75-98쪽.
- 최병우, 『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자료원, 2012.
- 최우길, 『조선족정체성 다시 읽기: 세 차원의 의식에 관한 시론』, 『재외한인연구』 34집, 재외한인학회, 2014, 95-131쪽.
- 한건수·설동훈,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한홍화, 『〈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정체성의 변이양상』, 『한국민족문화연구』 38집,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193-216쪽.

<Abstract>

Changes in Identity Observed in Heo Ryeon-soon's Long Novels

Choi, Byeo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the pattern of changes in identity observed in long novels *A Wind Flower* <바람꽃>, *Who Saw the House of Butterflies*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and *A Chinese Bride* <중국색시> (trilogy of *A Wind Flower*) written by Heo Ryeon-soon, a Korean Chinese woman writer. In order to novelize identity, Heo Ryeon-soon chooses elements related to her identity as a Korean Chinese woman such as nation, race, and gender, also general family identity of humans, and self-identity associated with disability.

Heo Ryeon-soon's *A Wind Flower* shows the pattern of national identity reinforced as a Chinese rather than as a Korean because of Korean Chinese immigrant workers' endurance of unbearable discrimination and humiliation for money and their experienc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oppression just after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ies in the 2000s, and reflecting this change, Heo Ryeon-soon, in *Who Saw the House of Butterflies*, describes a woman who tries to smuggle herself into Korea but dies on the way. Through this, she shows the character's fatal struggle to escape from pains arising from family identity or women's identity. With the revision of the Overseas Korean Act,

moreover, Korean Chinese were allowed to immigrate to Korea freely, and Heo Ryeon-soon published *A Chinese Bride* that depicts a woman who experiences confusion in her identity as a mixed blood of Chinese and Korean and a man who experiences confusion in self-identity due to a disability caused by a car accident. The couple breaks up due to the man's absorption into his own wound and resultant indifference to the other, and after a long period of time they reunite through the power of love.

In the trilogy of *A Wind Flower*, Heo Ryeon-soon expanded denotation from themes related to her own identity as a Korean Chinese woman to the general identity of humans. Through this, she delivers the strong message that the confusion of identity leads people's life to pains and breakup and, in order to overcome it, one needs to assume the attitude of understanding and tolerance, namely, love that objectifies his/her pains and accepts others' pains.

Key Words : Korean Chinese, Overseas Korean Act, identity, dual identity, family identity, confusion and breakup of identity, identity overcoming

■ 논문접수 : 2015년 10월 26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4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

